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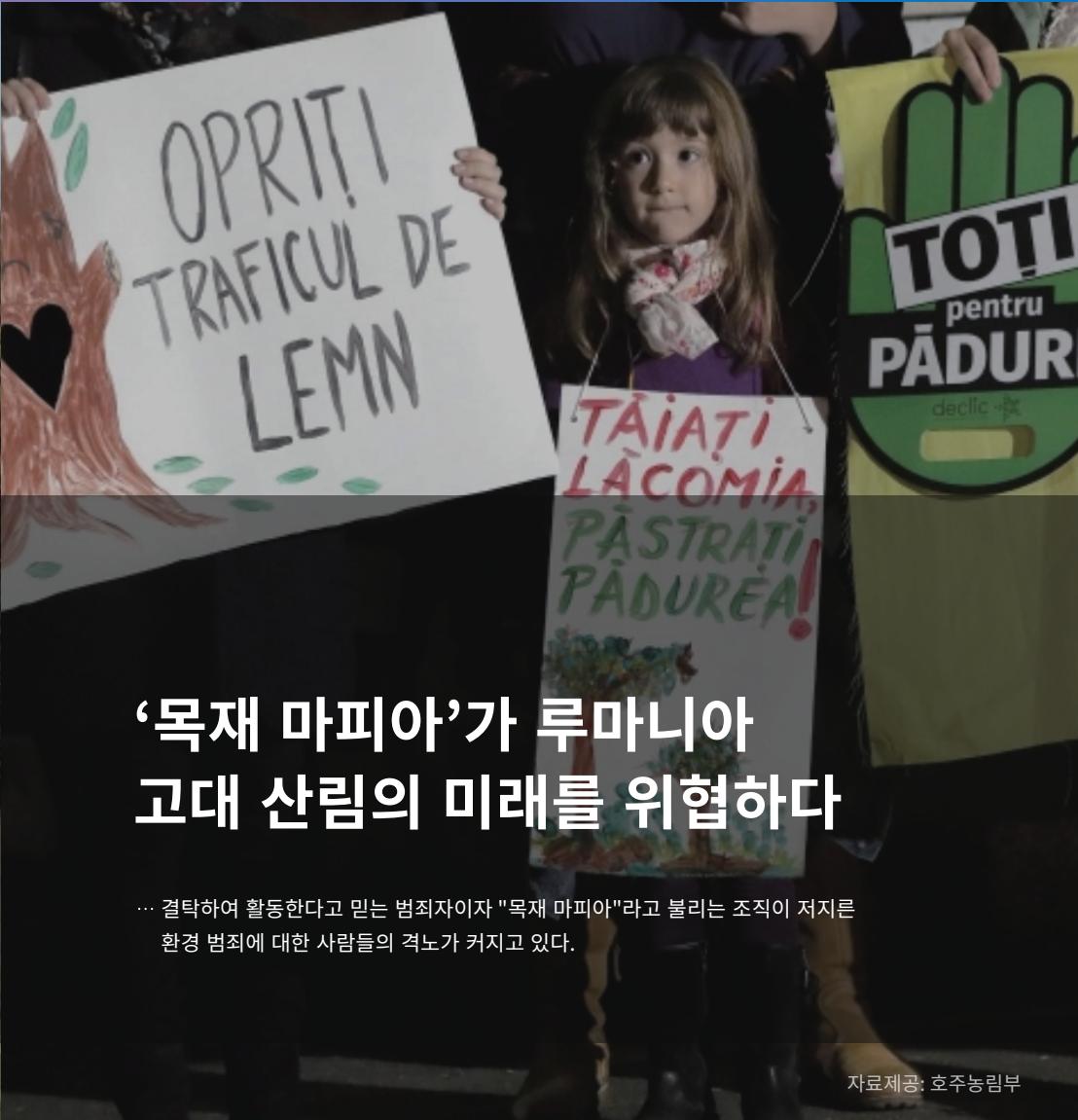
1월 반달 뉴스 (2호)



MAIN NEWS //

산림 보호에 나선 정부: 수상의 보좌관

… 아민 아슬람은 불법 벌채를 돋고 있는 정부 관리들이 조치에
직면할 거라고 말한다.



‘목재 마피아’가 루마니아 고대 산림의 미래를 위협하다

… 결탁하여 활동한다고 믿는 범죄자이자 “목재 마피아”라고 불리는 조직이 저지른
환경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격노가 커지고 있다.

자료제공: 호주농림부

산림 보호에 나선 정부: 수상의 보좌관

아민 아슬람은 불법 벌채를 돋고 있는 정부 관리들이 조치에 직면할 거라고 말한다.



파키스탄의 산림이 '성냥개비'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있다. [이미지 제공: 온라인]

이슬라마바드:

- 파키스탄 정부가 목재 마피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고 수상의 말릭 아민 아슬람 기후 변화 고문이 말했다.
 -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목재를 베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는 '10억 그루의 나무 쓰나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서, 산림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슬람은 불법 벌채나 산림 고갈에 연루된 사람 뿐만 아니라 목재 마피아도 엄격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경고했다. 수상이 직접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불법 벌채에 연루된 정부 관리들은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법에 따라 본보기가 될 만한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아슬람이 말했다.

아슬람은 ‘산림 법안’에 따라 목재 도둑에 대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말했으며,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재 마피아에 맞선 대규모 작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다.

또한 산림 보호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가져온 효과가 커지지 않도록 막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파키스탄 정부도 수령이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을 보존하고, 그 나무들에 ‘유산’의 지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후 변화 부처’는 2021년까지 백만 그루의 새로운 나무를 식수할 4개 주를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아슬람은 파키스탄 정부가 2023년까지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식수하는데 전념할 것이며, “우리는 내년까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나무를 계속해서 심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질문에 답하면서, “인도 트러스트 통신사(PTI)에 따르면, 정부의 주력 프로젝트인 100억 그루의 나무 쓰나미 프로젝트는 판도를 바꿀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지출한 자금의 세부 내용과 식수 운동이 진행 중인 지역을 촬영한 인공위성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기록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00억 나무 프로그램이 아자드 자무 및 캐시미르(AJK) 주와 길기트 발티스탄(G-B) 주를 포함해서 파키스탄의 모든 연방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아슬람이 말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19(Covid-19) 전염병의 여파로, ‘녹색 자극’ 패키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별도로 자치주에 녹지를 확장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아슬람 고문은 파키스탄의 임상 식물(산림 초목)을 늘리는 데는 정치적 의지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조건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무를 심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인류 및 국가 전체와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사람이 식수 캠페인에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땅이 사막으로 변해버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의 기후 변화와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슬람은 나무를 더욱더 많이 심어서 산림과 녹색 나무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책임이며, 이와 관련한 강력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목재 마피아’가 루마니아 고대 산림의 미래를 위협하다

널리 퍼진 불법 벌채가 루마니아의 수령이 오래된 산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그 산림이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루마니아 한 소녀가 2019년 11월 3일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산림 벌채에 맞서 부쿠레슈티에서 행진하는 환경 운동가들 사이에서 있다. 그녀의 플래카드에는 '탐욕을 잘라내라, 숲을 지켜라!'라고 적혀 있다. [이미지 제공: EPA]

루마니아의 수령이 오래된 산림은 동유럽의 카르파티아산맥을 가로지르는 광대한 고대 산림 지대이다. 루마니아의 수령이 오래된 산림은 빙하기가 끝난 이래로 변함없이 살아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특별한 산림이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일단 사라지면 이 산림을 완전하게 복원할 수는 없다.

루마니아 당국과 결탁하여 활동한다고 믿는 범죄자이자 “목재 마피아”라고 불리는 조직이 저지른 환경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격노가 커지고 있다. 세계 야생 생물 기금 루마니아 국가 책임자인 오리타 헐리아는 이 산림이 유럽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산림은 취약해서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산림은 자연 과정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생태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다.

“수령이 오래된 산림은 극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이 산림은 나이가 많은 나무와 어린 나무가 섞여 있고,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생물종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하는 모자이크식 서식지를 만든다. 곰 개체수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늑대 개체수의 약 30%가 루마니아에 산다. 루마니아에는 스라소니가 있고, 야생 고양이가 있다. 이 산림의 미적 가치, 영감 가치, 영적 가치는 무한하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루마니아에 위치한 보호 지역인 도마글드-밸리아 세르네이(Domogled-Valea Cernei) 국립 공원 [이미지 제공: 알자지라]

아무도 이 수령이 오래된 산림의 중요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 산림을 널빤지와 마분지로 바꾸고 있는 목재 회사와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목재 회사는 자신들이 가공 처리하는 모든 나무의 원산지를 추적하여, 그 나무들이 지속 가능성을 갖고 공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한편, 정부에 문의하면, 정부는 고대 삼림 지대에 전례가 없는 보호를 제공하는 엄격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유림 소유주인 잉카 투자(Ingka Investment)를 자매 회사로 가진 세계 최대 목재 소비자인 이케아(Ikea)와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은 산림과 공급망에 적용되는 엄격한 환경 조약이 그 어떤 법적 요건도 훨씬 뛰어넘는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협박, 폭행, 그리고 추문

그렇다면 이 고대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산림 파괴를 막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협박을 받고, 폭행을 당하고, 때로는 살해까지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브리엘 폰은 환경 보호 관련 문제를 다루는 루마니아 비정부 기구의 창립자이고, 루마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숲 활동가이다. 그가 불법 벌채꾼과의 싸움에서 거의 죽을 뻔한 경우가 한 번 이상이었다. “만약 산림 마피아의 이권에 얹혀 들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브리엘은 트란실바니아 지방 내부 깊숙이 위치한 레시타라는 작은 마을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나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시스템 안에 있는 훌륭한 산림 감독관이고, 짧고 열정적이며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한하면, 시스템이 여러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입을 다물고 눈길을 돌리거나 훔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스템과 싸우려고 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제거할 것이다.”라고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가브리엘 폰은 도마글드 국립 공원에서 불법 벌채를 찾는다. [이미지 제공: 알자지라]

지난 몇 년 동안 적어도 산림 감시원 6명이 살해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으며, 칼, 도끼, 그리고 총을 사용한 공격이 650회 이상 있었다고 가브리엘은 덧붙였다.

루마니아에서 벌목된 모든 목재의 절반 이상이 불법이다. 이것은 보호되어야 하는 지역에서 불법 벌채된 나무들이 채취되거나 대량으로 거둬들여져 할당량 한도를 위반해서 산림 전체가 아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마니아 임업 사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업체는 루마니아 삼림 지대의 48%를 감독하는 국영 기업 롬실바(Romsilva)이다. 롬실바는 자연 보전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롬실바는 최근 몇 년 동안 추문에 시달려 왔다. ‘국민과 권력’(People & Power, 알자지라 주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조사를 위해 촬영하는 동안, 우리는 과거와 현재 직원 대여섯 명과 때때로 익명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롬실바에 때때로 범죄자들이 침투한다고 주장했다.

국립 공원에서 일어나는 벌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생물학자인 전직 직원은 자신이 외딴 산림 지대로 유인 당했고, 하마터면 살해당할 상황에서 그곳에서 간신히 탈출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산림 감시원인 또 다른 전직 직원은 자신의 관할 영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벌채를 허용하지 않자, 처음에는 상사에게 협박을 받고, 그 다음에는 폭행을 당하고 숲에 내버려져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내가 롬실바의 책임자에게 이러한 주장을 제기했을 때, 책임자는 웃으며 직원들의 주장을 ‘다소 억지’라며 일축했다. 그는 그러한 불법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유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부패와 불법 목재

동유럽의 많은 나라처럼, 루마니아는 공산주의가 붕괴한 이후 만연한 부패에 시달려 왔다. 가브리엘 폰은 이로 인해 루마니아 시장을 지배하는 외국 목재 회사가 몰려든다고 믿는다.

“이렇게 부패가 심한 나라에 여러분이 왜 오겠는가... 내 생각에는, 편리해서이다. 그것은 더러운 손이 큰 입을 먹여 살리는 원칙에 적합하다. 내가 만약 회사이고, 루마니아에 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망설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들은 온다... 이 대기업들 모두가 루마니아로 온다.”라고 그는 말했다.

단연코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회사는 이전에 홀즈인더스트리 쉬바이크호퍼(Holzindustrie Schweighofer)로 알려진 HS 목재(HS Timbe)이다. HS 목재는 루마니아 전역에 목재 가공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맹렬한 속도로 산림의 나무를 소비하고 있다. 이 회사는 불법 목재 구매를 시인하는 회사 임원들을 찍은 비디오 녹화물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목재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단호하게 부인한다.

이 녹화물은 경종을 울렸고, 이것은 환경 운동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케아(Ikea)의 글로벌 산림 관리자인 미카일 타라소프(Mikhail Tarasov)에 따르면, “우리는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2017년 무렵, HS 목재로부터 목재를 공급받는 것을 중단했다.”라고 한다.

- 그런데도, 이케아는 이전에 HS 목재로부터 목재를 구입했고, 심지어 현재까지도 구입하고 있다. 왜냐하면, 타라소프가 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원산지가 잘못된 목재라면 단 1세제곱 미터도 우리 공급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사유림 소유주는 잉카 투자(Ingka Investment)이다. 잉카 투자는 이케아 브랜드 회사 그룹에 속해 있고, 타라소프는 이케아 그룹 회사들이 자격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열심히 주장하고 있다. “루마니아에 소재한 잉카 포레스츠(Ingka Forests)는 법적 요건과 법을 넘어서는 요건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시행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타라소프는 말했다.



루마니아의 도마글드 국립 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벌채 [이미지 제공: 알자자라]

그러나 업계 비평가들은 목재가 합법적으로 조달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자연 2000(Natura 2000)은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서식지를 포괄하는 보호 지역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잉카(Ingka)는 이러한 소중한 생태계를 이용하는 많은 회사 중 하나일 뿐이다. 잉카가 벌목하고 있는 자연 2000 부지는 펜텔루(Penteleu)라고 불린다. 펜텔루는 수령이 오래된 장엄한 산림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본 산림 작전 계획에 따르면, 바로 이 오래된 나무들이 긴급하게 벌목될 것 같다.

루마니아의 상황은 위태로워졌고, 유럽 위원회는 불법 벌채를 중단하지 못한 루마니아에 대해 위반 절차를 시작했다. 이 절차는 사건이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단계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룸실바의 전 고위 관리자였던 루마니아 산림 담당 국무 장관 겸루 퓨(Gelu Puiu)을 인터뷰했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숲이 승자라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러한 확언이 현실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카르파티아산맥을 여행하며 보낸 2주 동안, 거의 5,000km (3,106마일)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바로 독특하고 귀중한 생태계의 점진적인 파괴를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구조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많이 있으나,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유럽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산림이 향후 10년 동안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이 오래된 산림을 영원히 잃기 전에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